

# 동그란 지구 위 나무 꽃 호수... 그 속에 담긴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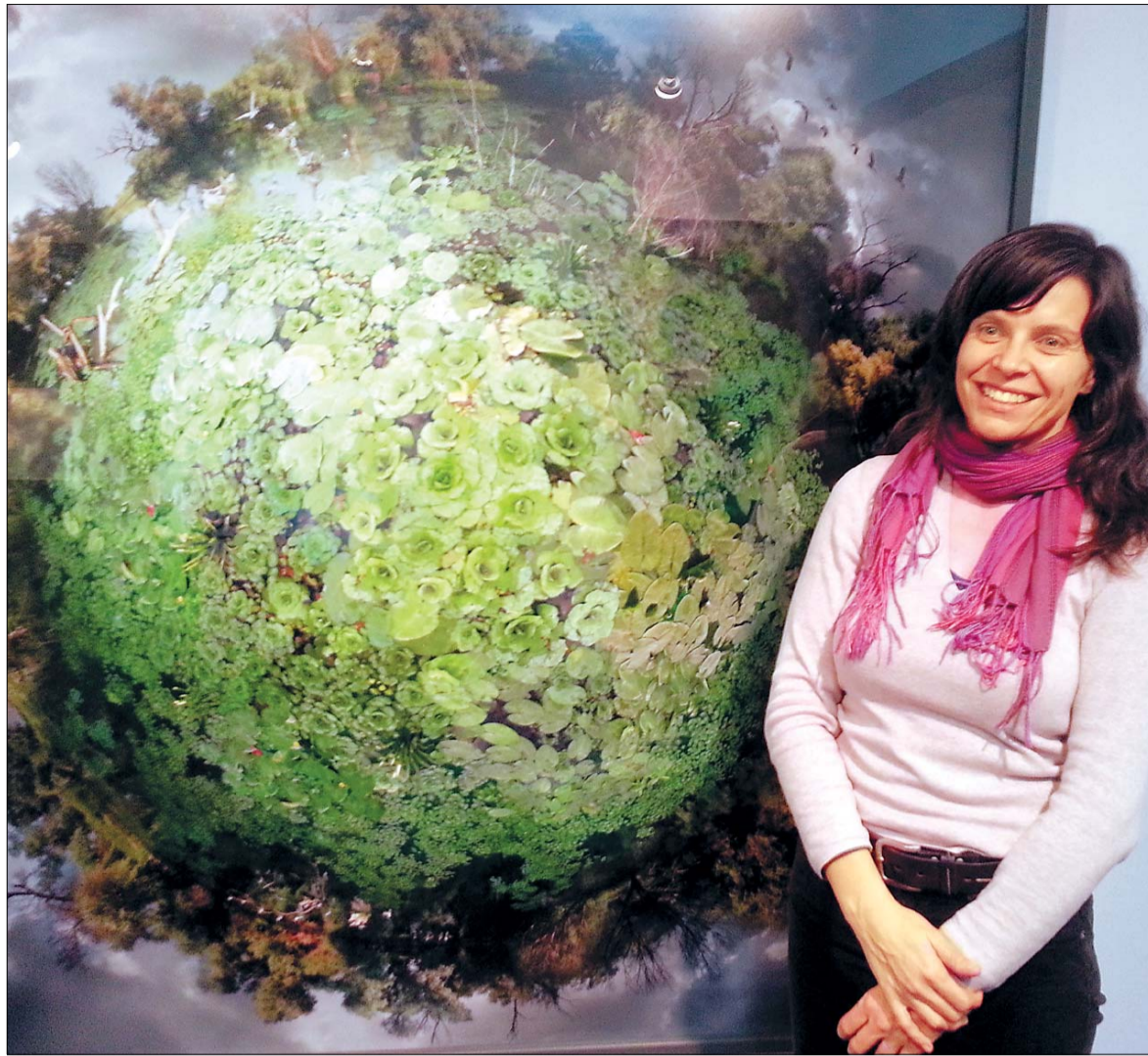
## 캐서린 벨슨 한국 개인전 'Other Worlds'

호주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류 사진작가 캐서린 벨슨(42)은 영국의 유명한 컬렉터인 찰스 사치가 주목하는 작가다.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피카소, 고흐의 작품과 함께 벨슨의 사진을 나란히 전시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서는 '주목할 만한 작가' 8명 가운데 1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국제 미술계 주목받는 스타 사진작가  
갤러리나우 공모전 100대1 뚫고 수상  
사진과 회화 넘나드는 20여점 선보여  
"한국 첫 방문... 인사동 골목길 인상적"



벨기에의 한 호숫가에 피어 있는 꽃들을 채집한 '봄꽃'.



서울 인사동 갤러리나우에서 한국 첫 개인전을 여는 호주 출신의 사진작가 캐서린 벨슨이 자신의 작품 '다뉴브'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벨슨은 지구 모양의 화면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세계 미술계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그의 한국 개인전인 'Other Worlds(다른 세계들)'라는 타이틀로 서울 인사동 갤러리나우에서 12월 4일까지 열린다. 벨슨은 갤러리나우(관객이 중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진 공모전의 올해 수상 작가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지구촌 곳곳의 풍경을 채집해 화면에 붙이고 붓질까지 곁들인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지난 주말 전시장에서 만난 벨슨은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인사동 골목길이 인상적이다. 전시장 분위기가 좋고 작품이 돋보이도록 잘 설치됐다"며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호주의 영화사에서 디자인 스태프로 일하다 2008년 사진작가로 변신한 그는 "연일 계속되는 촬영에 지쳐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사진에 매료돼 직업을 바꿨다"고 밝혔다.

동그란 지구 모양의 화면에 나무 꽃 호수 등을 배치하고, 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물감으로 붓질하는 방식으로 작업한 그의 작품은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든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린다. 힘든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그는 '테크놀로지'로 그린 그림 '카메라로 붓질한 진화된 풍경화'라고 정의했다.

루마니아 다뉴브강을 여행하며 작업한 '다뉴브' 시리즈는 수

많은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 속에는 원시림 같은 숲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의 지저귀음이 있으며, 감성적인 노래와 시가 있다. 특히 풍경 가운데 놓인 파릇파릇한 수초(水草)는 어렵게 살아가는 루마니아 사람들이 식량 대신 뜯어먹는 식물로, 고난의 역사를 상징한다.

벨기에의 어느 호숫가에 피어 있는 꽃들을 채집한 '봄꽃'은 옹졸한 기운을 뿜어내는 신비스런 겨울 같다. 태초의 모습이 아렸을까. 순수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자연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탈리아 엘바 섬을 소재로 한 작품은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돌들이 세월의 흐름과 삶의 순환을 대변하고 있다.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느낌이다.

광활한 우주 같은 작품을 통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환경문제라든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는 질문을 많이 받아오. 하지만 저는 그냥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관람객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그건 자유입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창덕궁과 북한산 등을 둘러보고 작품 소재로 캐스팅할 계획이라는 그의 차기작이 벌써 궁금해진다(02-725-2930).

글·사진=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 일우사진상 최영만 개인전



한진그룹 산하 일우재단이 선정한 제3회 일우사진상 수상작가 최영만(44)의 개인전이 서울 서소문동 대한항공빌딩 1층 일우스페이스에서 12월 26일까지 개최된다. 2001년부터 '땅'을 주제로 작업해온 작품 가운데 '타' 프로젝트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철거 후 버려진 공터(사진), 도로 위 하얗게 칠해진 보도선 등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흔적을 찾는 작품이다. 일우사진상 수석 심사위원인 미국의 크리스토퍼 필립스 큐레이터는 "비어있는 도시공간을 평범하지 않은 디테일을 지닌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평했다(02-753-6502).

## 아워슬러 국내 첫 개인전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비디오 작가 토니 아워슬러(55)의 국내 첫 개인전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313아트프로젝트에서 12월 8일까지 열린다. 아워슬러는 백남준 이후의 비디오 아트 세대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작가로 비디오와 영상에 과학기술과 퍼포먼스를 접목시킨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대형 설치작품(사진)을 비롯해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사를 시적으로 표현한 비디오 작품, 회화 속에 작은 비디오가 숨어 있어 그림 속 세상을 엿보는 느낌을 주는 작품 등 10여점을 선보인다(02-3446-3137).

## 獨 아트커미션 첫 작가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양혜규(41) 작가가 독일 뮌헨 하우스 데어 쿤스트의 '제1회 연례 아트 커미션' 첫 번째 작가로 선정됐다. 연례 아트 커미션은 해마다 한 작가를 선정해 약 9개월간 전시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공공(公共)'으로라는 타이틀로 2013년 9월까지 열린다. 나치의 국가사회당 시절 '영광의 홀'이라 불린 하우스 데어 쿤스트의 중앙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설치작품(사진)을 전시한다. 이광형 선임기자

## 화제의 전시

### 동서양 명화 차용 '시간의 넘나듦' 표현

동서양의 유명 회화를 차용해 '시간의 복제'라는 작품을 선보여온 한만영(66) 작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을 시도한다. 명화를 양각과 음각이 있는 입체 작품으로 재현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재료와 작업 방식은 전시 때마다 바뀐다. 올해 대학(성신여대)을 정년퇴직한 그가 전업 작가로 나선 후 첫 개인전을 서울 관훈동 노화랑에서 22일까지 연다.

얇은 철판에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헨리 신윤복의 '미인도',

겸재 정선의 '박연폭포' 등 명화들의 윤곽선을 새긴 다음 푸른빛 캔버스에 부착한 작품 20여점을 전시장에 내걸었다. 조각 기법을 활용해 입체성을 살린 신작들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있다. 일종의 '철제 오브제 회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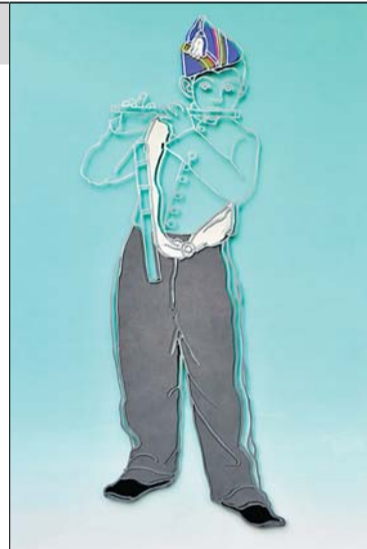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에서 모티브를 얻은 '시간의 복제-꿈'은 "꿈에 나비가 돼 이리 저리 날아다니며 꽃도 구경하고 들도 구경했으나 깨어보니 인간인 나였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 한만영 개인전-22일까지 관훈동 노화랑

발한다. 작가는 '호접몽'을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것보다는 '시간의 넘나듦'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한다. 현대 기계문명 속에서 원본과 복제, 현실과 가상, 삶과 죽음이 결국 하나라는 얘기다.

300호 크기의 화면에 그린 작품 '매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살아있는 싱싱한 매화가 마치 조금씩 시간 차이를 두고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분홍색 바탕에 꽃과 가지만 그려내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두어 비움의 철학을 추구했다. 작가는 "과거에는 한 우물만 열심히 파면 됐지만 이제 융합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며 의욕을 보였다(02-732-3558).

이광형 선임기자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을 차용한 한만영 작가의 '시간의 복제-뮤지션'.

# 암 회복에 모르는 지름길 있습니다!!!



“병용시 항암제,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훨씬 경감시킵니다.”

폐, 위장, 간장, 십이지장, 담낭으로 전이된 암 판정 3개월의 시한부 삶 선고! 기적과도 같은 회생!

암을 딛고 일어서 암환자들의 길잡이로서 제 2의 인생을 겪는 시미즈 의사,

난바히로아키 교수의 『마이다케 요법』과 만난다.

- 예약 상담 접수 : 02-783-7004
- 암환자와 가족, 내원시 책자 무료 증정
- www.maidake.co.kr
- 동영상 - 후지 TV, SBS, KBS 방영

상담전화 02-783-7004